

#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취급실태

## Survey on Consumer's Cognition for Management of Clothing Products

김 양 원 · 이 해 영\* · 이 은 경\*\*  
대전대학교 의류학과

Kim, Yang Weon · Lee, Hae Young\* · Lee, Eun Ky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Taejon Univ.

### Abstract

To investigate the cognition of labeling system and its problems, problems in laundry, and consumer's dissatisfaction and to decrease problems in management of clothing products, total 476 subjects were surveyed in Taejon.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cognition of labeling system was understood by 93.1% of respondents, and 72.9% of them prefer to recognized labeling by figures and letters than by either of them. Most of respondents got the knowledge of labeling system from school. The most frequently experienced mislabeling was the label for management.

2. In cleaning, 60.4% of respondents made their decisions of the laundry method after seeing labeling system. When the label recommended either of hand washing or dry cleaning, they usually laundered with hand washing after a few times of dry cleaning. The first consideration factor for laundry was fiber composition of textiles.

3. About 70% of respondents understood ironing, laundry, and drying mark on labeling system, and 53.8% understood fiber composition and bleaching.

4. More than 90% of respondents experienced dissatisfaction in handling clothing products. The reason of dissatisfaction was deformation and decoloring after laundry. Most of respondents experienced change of tactile sensation, too.

### I. 서 론

하이테크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은 소비자의 소비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의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새로운 섬유소재의 개발과 가공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의류제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개성을 강조하고, 패션성이 있으며, 품질이 고급인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류제품의 소재들은 고급화됨과 동시에 기존의 소재와는 다른 방법

으로 제조되고, 제품의 특성도 다르며,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그러나 신제품에 관한 상품 품질기능, 관리, 품질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지식은 신제품 개발 속도를 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간편적인 정보에만 의지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는 부적절하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품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의류제품의 취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찬애, 1990; 한국소비자

보호원, 1990; 배순화, 1991).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의복에 대한 품질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표시제도는 의류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업자로 하여금 책임성을 강조하여 품질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도록 한다(한국 겔럽조사연구소, 1989). 그러나, 섬유제품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각각의 섬유에 가공을 하므로 단순히 섬유명에 따라 의류제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변색, 축감저하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며, 이러한 문제는 의류제품의 관리나 세정조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林 泰子 등, 198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의류제품 취급시에 겪는 문제점이나 인식에 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며, 특히 의류제품의 품질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또 불만사항은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 한 것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의류제품 품질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도와 세탁에 관련된 문제점, 취급표시에 대한 이해도, 의류제품 취급시의 소비자 불만 등을 파악하여 의류제품 취급시에 발생하는 장애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또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소비자 교육의 내용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의류제품의 품질표시 관한 사항 13문항, 세탁에 관해서 5문항, 취급표시의 이해도 6문항 및 소비자 불만에 관한 내용 10문항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최해운, 1992; 박찬해, 1990; 林泰子 등, 1983)를 토대로 하여 추출한 문항과 연구자가 추가로 조사한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1996년 12월부터 1997년 1월 사이에 시행하였다. 표본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총 600부의 질문지 중 480부가 회수 되었으며, 미완성인 것을 제외하고 총 47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89명, 20-29세는 143명, 30-39세는 64명, 40세 이상은 180명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65명, 고졸 196명, 대학재학 104명, 대졸 이상은 96명이었다. 수입별로는 150만원 이하 157명, 150-200만원 134명, 200-300만원 110명, 300만원 이상 75명이었다.

##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질문의 유형에 따라 일반적인 특성과 품질표시에 관한 인식도, 세탁에 관한 사항, 취급표시 사항, 소비자의 불만사항에 관한 문항등으로 정리하고,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및  $\chi^2$  검증 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품질표시에 대한 인식도

의류제품 품질표시는 생산자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품에 표시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이다. 이에 관하여 소비자의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93.1%가 품질표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제품에 대한 품질표시의 필요성은 학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95% 이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품질표시의 형태는 그림과 문자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72.9%였고, 문자만으로 13.7%, 그림만으로 10.9%, 기타 2.6%였다. 의복의 품질표시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1>과 같이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류제품 품질표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교로부터 알게 된 비율이 감

<표1> 의복의 품질 표시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

		학 교	강습회	텔레비전	신문,잡지	판매처	알기회가 없었음	N(%)	$\chi^2$
연령	10대	57(65.5)	5(5.8)	5(5.8)	8(9.2)	10(11.5)	2(2.3)	68.50**	
	20대	78(54.6)	3(2.1)	10(7.0)	27(18.9)	23(16.1)	2(1.40)		
	30대	28(43.8)	4(6.25)	7(10.9)	8(12.5)	16(25.0)	1(1.56)		
	40대이상	45(25.4)	3(1.7)	29(16.4)	48(27.1)	38(21.5)	14(7.9)		
학력	중졸이하	9(14.1)	1(1.56)	17(26.6)	13(20.3)	18(28.1)	6(9.4)	52.38**	
	고 졸	81(42.2)	4(2.1)	20(10.4)	42(21.9)	37(19.3)	8(4.2)		
	대 재	57(54.8)	5(4.8)	7(6.7)	16(15.4)	17(16.4)	2(2.0)		
	대졸이상	53(55.2)	4(4.2)	5(5.2)	18(18.8)	13(13.5)	3(3.1)		
월수입	150만원이하	64(42.3)	7(4.5)	14(9.0)	25(16.1)	38(24.5)	7(4.5)	14.03	
	150 - 200	60(45.1)	1(0.75)	17(12.8)	29(21.8)	20(15.0)	6(4.5)		
	200 - 300	49(45.4)	3(2.8)	10(9.3)	24(22.2)	19(17.6)	3(2.8)		
	300만원이상	35(46.7)	4(5.3)	10(13.3)	13(17.3)	10(13.3)	3(4.0)		

\* P<.05, \*\*P<.01

소한 대신에, 신문이나 잡지, 판매처 등에서 알게 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함옥상 등(1988)이 지적한 젊은 세대의 소비의식 수준이 엘리트화 한다는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인 경우는 판매처, 텔레비전, 신문이나 잡지에서 의류제품 품질표시에 대하여 알게 된 반면, 고졸 이상은 주로 학교에서 배워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볼 때 학교 이외에는 판매처,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정규 교육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의류제품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으므로, 사회교육 측면에서 의류제품 품질표시에 대한 강습회의 기회를 늘려 소비자들이 만족한 의생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의류제품 구매시 소비자의 57%정도는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품질표시의 확인여부는 학력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5$ ). 즉, 중졸 이하에서는 약 45%정도만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졸이나 대졸인 경우가 대학 재학생인 학생보다는 품질표시를 더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보다는 주로 주부가 의복을 취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관점에서 취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반면, 학생은 의복구입시 의복의 취급상의 문제보다는 패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품질표시가 상품선택에 도움이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표2>와 같다.

<표2> 품질표시가 상품선택에 도움을 주는 지 여부와 잘못된 품질표시를 겪은 경험

	N(%)			
	도움이 된다	안된다	있다	없다
사이즈표시	356(75.1)	118(24.9)	15(3.2)	460(96.8)
섬유조성표시	338(71.2)	137(22.8)	148(31.2)	327(68.8)
취급주의	257(54.1)	218(45.9)	115(24.2)	360(75.8)
제조업체	456(96.0)	19(4.0)	10(2.1)	465(97.5)

품질표시 중 제조업체에 대한 표시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치수표시, 섬유조성표시였으며, 취급표시가 상품선택에 가장 적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품질표시를 경험한 빈도는 섬유조성표시에 관한 표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취급주의에 관한 표시였으며, 제조업체나 치수표시가 잘못된 경우는 응답자의 약 3%정도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표시가 의복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62.5%가 의복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학력이나 연령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 현행 품질표시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85.7%, 대졸의 82.1%가 신뢰하고 있었고, 중졸 이하에서는 67.8%, 그리고 고졸은 69.7%만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간의 차이를 느낄수 있었다 ( $p<.05$ ). 반면에, 품질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나 학력간의 차이를

볼 수 없었고, 응답자의 29.8%가 '만족', '그저 그렇다' 61.8%, '불만족' 8.3%였다. 불만족 사유로는 '치수표시'가 42.7%, '표시내용의 부족' 32.9%, '표시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20.7%, 기타 3.7%였고, 이것에 대한 학력별, 연령별 차이도 볼 수 없었다.

## 2. 세탁에 관한 인지도

선행연구(최해운, 1992; 林 郁, 1996)로부터 의류제품 취급시 가장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세탁에 관한 문항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의류제품 세탁시 세탁방법에 관한 결정은 '취급표시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가 가장 많아 60.4% 였고, 다음이 '취급표시대로' 25.7%, '나름대로 판단하여' 13.7%, 기타가 0.2%였다. 또, 의류제품에 물세탁과 드라이크리닝이 동시에 부착되어 있을 때의 세탁방법에 관한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3> 의류제품의 품질표시에 물세탁과 드라이크리닝 모두가 표시되어 있을 때 세탁방법 선택 N (%)

	N (%)				
	물세탁	드라이 크리닝	드라이 크리닝후 물세탁		
연령	10대	40(45.5)	19(21.6)	29(33.0)	$\chi^2 = 23.42^{**}$
	20대	51(35.7)	40(28.0)	52(35.7)	
	30대	13(20.3)	12(18.8)	39(60.9)	
	40대	66(36.9)	25(14.0)	88(49.2)	
학력	중졸이하	28(44.4)	8(12.7)	27(42.9)	$\chi^2 = 14.23^*$
	고졸	71(36.2)	44(22.5)	81(41.3)	
	대재	42(40.4)	23(22.1)	39(35.7)	
	대졸이상	23(24.0)	17(17.7)	56(58.3)	

\*P<.05, \*\*P<.01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 학력별, 월수입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에 따라서는 1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물세탁을 가장 많이 하였고, 20대의 연령층이 드라이크리닝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30대에서는 주로 드라이크리닝 후 물세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가 물세탁을 가장 많이 하는 반면, 드라이크리닝은 가장 적게 하

였다. 대졸 이상은 드라이크리닝 후 물세탁을 하였다 (p<.05). 이러한 결과는 磯村(1985)이 지적한 바대로 개인으로서 소비자도 자신만의 경험정보를 축적하여 세탁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도화 정보사회에서 의류제품의 취급에 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학교교육, 의복을 생산하는 기업체와의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도의 정보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탁방법의 결정기준은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섬유유 조성에 따라 결정하는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의복의 모양이나 질감 등에 따라서 25.7%, 의복의 용도에 따라서 15.0%, 의복의 구입가격에 따라서 6.1% 였다.

## 3. 취급표시에 대한 이해도

의복에 부착된 취급표시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한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취급표시 중 표백에 관해서는 51%, 다림질에 관해서는 74.1%, 건조에 관해서는 69.7%, 섬유의 조성에 관해서는 58.3%만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또, 세탁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1.0% 정도가 이해한다고 응답하였다. 어영숙(1984)이나 박찬애(1990)의 연구에서, 다림질을 제외한 취급주의 표시에 관해서 80% 이상이 이해한 것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의 응답자가 취급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낮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표백이나 섬유의 조성에 관한 취급표시에 관하여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경우 어영숙(1984)과 박찬애(1990)의 연구에 비하여 연령층과 교육수준이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표 4>는 연령별, 교육수준에 따른 취급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다림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해도는 고졸 이상과 중졸 이하가 차이를 보였고(p<.05), 고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는 다림질에 관한 표시사항을 더 잘 이해하였으며, 건조에 대한 품질표시의 이해도는 교육수준,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졸 이하 보다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건조에 관한 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

<표 4> 연령, 학력에 따른 취급 표시에 대한 이해도 N (%)

			이해한 경우		이해 못하는 경우	$\chi^2$
			이해한 경우	이해 못하는 경우		
다 림 질	교육 수준	중졸이하	48(59.7)	35(40.3)	23.88*	
		고졸	145(74.4)	50(25.6)		
		대재	83(79.8)	21(20.2)		
		대졸	73(69.8)	22(30.2)		
연령	19세이하	61(70.9)	25(29.1)	8.01		
	20 - 29	110(76.9)	33(23.1)			
	30 - 39	45(71.4)	18(28.6)			
	40세이상	130(72.6)	49(27.4)			
건 조	교육 수준	중졸이하	33(53.2)	29(46.8)	42.59***	
		고졸	134(69.1)	60(30.9)		
		대재	84(80.8)	20(19.2)		
		대졸	67(70.6)	29(19.4)		
연령	19세이하	66(76.8)	20(33.2)	29.62**		
	20 - 29	110(76.9)	33(23.1)			
	30 - 39	39(61.9)	24(38.1)			
	40세이상	113(63.1)	66(36.9)			
섬 유 의 조 성	교육 수준	중졸이하	23(37.1)	39(62.9)	35.26***	
		고졸	105(53.9)	90(46.1)		
		대재	70(67.3)	34(32.7)		
		대졸	68(70.6)	27(29.4)		
연령	19세이하	50(58.1)	36(41.9)	10.04		
	20 - 29	92(64.3)	51(35.7)			
	30 - 39	37(58.7)	26(41.3)			
	40세이상	97(54.2)	82(45.8)			

\* P<.05, \*\*P<.01, \*\*\*p<.001

고, 대학에 재학중인 응답자가 가장 잘 이해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보다 20대나 19세 이하 응답자의 이해도가 더 높았는데, 이것은 교육수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즉 19세 이하나 20대에는 대학 재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섬유의 조성에 대해서는 교육정도에 따라서 알고 있는 비율에 차이를 보였으며, 대졸이상은 70.6%가 이해하고 있는 반면, 고졸은 53.9%, 중졸은 37.1%만이 이해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잘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생활 관리를 잘 하려면, 교육대상의 교육수준, 연령을 고려하여 품질표시중 섬유의 조성이나 표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조성에 관하여 잘 모르는 이유는 '섬유의 특성에 관하여 모르기 때문'이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표시내용 부족'이 3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위의 결과를 보면, 취급 표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소비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류제품을 취급 할 경우 의류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의 부주의 또는 잘못된 취급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4. 소비자 불만에 관한 사항

의복취급시 소비자의 89.7%가 불만을 느꼈으며, 불만의 사유는 세탁후 변형이나 탈색이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품질자체의 불량 27.4%, 서비스 불량 12.7%, 품질표시의 불량 3.5%, 기타 2.6%의 순이었다. 이 불만요소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8.8%였고, 불만제기는 87.8%가 소비자보호단체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판매처에 주로 하였다. <표 5>는 의류제품 취급시 나타나는 문제점 경험유무에 관한 것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류제품 취급시 촉감의 변화는 거의 100%가 경험하였고, 부속품 불량은 응답자의 90%이상이 경험하였으며, 색상변화나 표면의 변화도 80%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효순(1984)의 연구에서는 고발된 내용은 '취급표시 불량'에 대한

<표 5> 의류제품 취급시 문제점 경험 유무

	N(%)	
	있다	없다
세탁시 수축	290(61.6)	181(38.4)
색상변화	414(87.9)	57(12.1)
파손	362(76.9)	109(23.1)
표면변화	382(81.1)	89(18.9)
부속품불량	439(93.2)	32(6.8)
촉감변화	462(99.6)	2(0.4)

소비자의 고발이 가장 많았던 반면, 박찬애(1990)는 '세탁후 변형되거나 탈색되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내용은 조사대상의 연령층이나 교육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경우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도 다르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의 결과들로 부터 의류제품 취급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표시

를 제대로 해야함과 동시에 의류제품 표시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기업측에서도 의류제품의 취급표시를 정확히 하는 것이 요구되며, 아울러 현재 품질표시 사항에 의류제품의 성능에 대한 표시를 의복에 부착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의류제품의 가공처리방법, 성분과 기능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서를 별지에 만들어 의류제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비자의 품질표시에 대한 인식도와 세탁에 관련된 문제점, 취급표시에 대한 이해도, 소비자 불만 등을 파악하여, 의류제품 취급시에 발생하는 장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부 476명을 대상으로 1996년 12월부터 1997년 1월에 걸쳐 질문지 조사를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품질표시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93.1%가 인식하고 있었고, 품질표시의 형태는 그림과 문자로 동시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의류제품에 관한 품질표시에 대하여 알게 된 경위는 주로 학교교육을 통하여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된 품질표시를 경험한 빈도는 섬유조성표시가 가장 많았다.

2. 의류제품의 세탁방법에 관한 결정은 응답자의 64.1%가 주로 취급표시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취급표시에 물세탁과 드라이크리닝이 동시에 부착되어 있을 때 주로 드라이크리닝후 물세탁을 하였다. 세탁방법의 결정기준은 섬유의 조성에 따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취급표시에 관한 이해도는 다림질, 세탁, 건조에 관하여는 응답자의 70%정도가, 섬유의 조성에 관해서는 58.3%, 표백에 관해서는 51%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비자의 약 90%가 의류제품 취급시 불만을 느꼈으며, 불만의 사유는 세탁후 변형이나 탈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의류제품 취급시 촉감의 변화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의류제품 취급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 학교교육, 의복을 생산하는 기업간의 유기적인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의류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의류제품의 품질표시를 특히 성능에 관한 표시를 의복내에 부착하는 것과 동시에 의류제품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를 따로 첨가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찬애(1990), 시판 의류제품의 품질표시 실태와 소비자 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순화(1991), 섬유제품의 취급방법과 관련된 레이블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영숙(1984), 청년기 여성의 의생활 의식 조사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효순(1984), 시판 의류제품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해운(1992), 시판 의류제품에 관련된 소비자 불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 껌조사 연구소(1989), 품목별 기성복대 맞춤복의 비율, I.W.S. 한국지부
- 한국소비자보호원(1990), 섬유제품 및 세탁용 세제 표시실태 조사, 한국소비자 보호원
- 함옥상, 은영자, 류덕환(1988), 소비자의 의복 구매시 품질표시제도의 인식도와 표시 내용의 실태조사, 계명대 과학논총 제 14집, pp 1 - 11
- 林 郁(1996), 消費者問題總論, 纖維製品消費科學, 37(4), pp 174-178
- 林 泰子, 伏木 美紀子, 吉川 清兵衛(1983), 纖維製品の苦情と消費者教育, 纖維製品消費科學, 24(6), pp 234-243
- 碓村隆文(1985), 高度情報化社會の消費生活, 纖維製品消費科學, 26(7), pp 277-280